

# 미술로 소통하는 예향 광주

## art:gwangju:17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7'**  
**오늘~10월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국·프랑스 등 6개국 69개 갤러리**  
**송필용 등 작가 부스 107개 운영**

'아트:광주17'(광주국제아트페어)이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림-예향광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등 6개국 69개 갤러리와 개인작가 부스 136개가 참여한다. 또 다양한 주제를 담은 4개의 기획전과 청년작가전 등이 관객을 찾아간다.

올해 갤러리 부스 중 해외 갤러리는 5개국 18개다. 중국 789예술지구에 위치한 양갤러리와 프랑스 프랑수아즈 리비네 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며 미국 낸시 투메이 파인아트, 영국의 폴티고 갤러리 등이 새롭게 포진했다.

국내 갤러리는 모두 51개가 참여한다. 올해는 갤러리 북, 이화갤러리, S갤러리 등 10개가 부스를 열었으며 서울-경기 지역 21개 갤러리를 비롯해 부산, 대구, 전남 지역 갤러리가 참여했다.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인 작가 부스는 지난해보다 21개가 늘어난 136개가 운영된다. 정송규·박주하·송필용 등 지역 작가 107명 등 전국에서 활

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했다.

패기 있는 청년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작가'전은 올해도 이어진다. 30년 역사의 '광주청년작가회' 회원 등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60명이 참여하는 부스 12개를 운영, 신선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기획전은 '남농-아산전'으로 예향 남도의 대표적 인물 두 대가 남농 허건과 아산 조방원의 작품을 통해 남종 문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 '예향명품공예전'에서는 강진 청자에서부터 무등산 분청사기의 도자 공예 등 지역의 명품 도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가 만든 나주 소반, 옷칠 공예가의 작품들을 만난다.

세 번째 민화전 '모란이 피기까지는'전은 서울 가회박물관과 민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호남민화



서울 화랑 부스를 통해 출품된 작품.

12개 시도 대표 화가들이 참여하는 '12개 지역초대 작가전'도 눈길을 끈다.

부대행사로는 판화체험, 금속공예 체험, 염색체험 등이 있으며 아트숍과 미술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아트나우 등 미술 장터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5·18 정신 헌법화 염원, 예술로 꽃피우다

공연 '낮달' 30일 옛 전남도청 앞

광주 5·18 정신 헌법 수복을 위한 공연 '광주의 낮달 꽃을 피우다'가 오는 30일 오후 7시 55분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다. 무용과 미술이 어우러진 이벤트다.

주최측에 따르면 푸른 하늘에 떠 있는 '낮달'은 광주 정신을 말한다. 낮달은 항상 떠 있지만 태양 빛에 가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다. 지금껏 왜곡되고 탄압하는 세력에 맞서 오월 광주는 언제나 꽃잎이 낮달처럼 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가 구광모씨가 '퍼해밍 아트·Prformance Happening Art·퍼포먼스'와 해프닝 이융합된 예술양식)로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박선욱 광주여대 무용과 교수의 안무로 돌출 무용단이 무대를 꾸민다.

특히 송아름, 김지나, 김소리씨와 무대에 오르는 돌출무용단의 김연우씨는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고(故) 김영철씨의 딸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선욱 안무가는 광주도청 앞 정문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을 만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간



구광모 작가 '퍼해밍 아트'

다. 출연진들은 정문 안에서의 바라보던 눈, 정문 밖에서의 관찰자의 눈으로 춤을 추고 518의 영령들이 다시금 현재로 살아돌아오기를 표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단장 '서창한옥문화관' 오늘 개관... 30일까지 문화제

6개월 동안 새단장을 마친 서창한옥문화관이 개관식을 열고 '제 1회 서창한옥문화제'를 개최한다.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한 문화관은 한옥스테이, 고추장 학교 등 특색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을협동조합 서창늘빛이 전통 찻집도 운영한다.

28일 개관식에서는 현판 제막과 함께 축하공연 '전통한옥 달빛음악회'가 열린다. 박광신(TBN교통방송) 아나운서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소리꾼 김주희의 판소리 '단가'와 '사찰가', '재즈피에스타'의 공연이 열리며 가수 주권기씨가 참여한다.

30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서창한옥문화제에서는 전래동화 가족인형극, 한복체험, 공예체험, 추석 세시풍속 강경 만들기, 생활예술인 발굴 지원무대 '낭만가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획전시 '서창, 문화에 물들다'는 28일까지 서창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서창한옥문화관(062-373-1365)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www.ymcakwangju.or.kr) 참조. /김미은기자 mekim@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전경.

# 바로크 음악과 춤이 만나면?

청소년음악회 30일 광주문예회관

청소년음악회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 : 바로크 음악 편'이 오는 30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클래식이 정말 좋아요' 시리즈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클래식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형 콘서트다. 바로크 음악 편을 시작으로 고전, 낭만, 현대 음악 순서로 총 4회 공연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리즈의 첫 공연인 바로크 음악 편에서는 바로크 시대 대표 작곡가인 바흐와 비발디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고악기 리코더와 하프시코드 연주로 그 시대의 소리를 재현해 낼 예정이며 연주와 함께 바로크 복식을 한 무용수의 춤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이자 리코더 연주자인 권민석이 지휘를 맡았으며 하프시코디스트 오주



지휘자 권민석

희, 광주시향 제1바이올린 수석단원 박선영, 광주시립발레단 상임단원인 한지연과 김희준이 협연한다.

공연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 '서곡'으로 시작해 '하프시코드 협주곡 5번'이 차례로 연주된다. 'G선상의 아리아'에 이어 '관현악 모음곡 3번 중 가보트'에 맞춰 바로크 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인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무대가 막을 내린 후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공연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연 전 나만의 하프시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리콘서트 활동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위, 서명안 광주시에 전달키로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지역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2차 간담회가 지난 26일 광주에총 아시아장작스튜디오 방울소리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원식 광주문예회장,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최규철 광주예총회장 등 추진위원과 다수 문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들은 그동안 전개했

던 문학관 건립 촉구 서명 결과물을 광주시, 광주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추진위원들은 문학관 건립을 위해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제1차 간담회에서 합의된 광주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결의사항을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문의 010-3619-3831. /박성천기자 skypark@




## 추석선물은 한국제다 명인이 만든 작설차로!

장성, 영암, 해남의 싱그러운 차밭을 모아 70년의 세월동안 녹차 본연의 맛을 추구한 한국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국제 녹차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 HACCP 및 ISO22000 인증을 획득.  
 아시아나 항공기내 차납품으로 그 맛을 인증받았습니다.

을 추석에도 명인이 만든 명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www.hankooktea.co.kr



무지개 Set



사계절 Set



감사 Set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